

# 2500까진 실적이 이끌어… ‘주주환원’으로 저평가 넘어야

〈코스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 기업지배구조 글로벌 저평가  
현대기아차 투명경영 쾌도 관심

삼성전자의 액면분할 등 주요 기업들의 지배구조선 및 주주친화정책이 ‘코스피 3000’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긍정적인 면은 코스피 리딩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이다.

노무라는 올해 코스피 순이익 증가율을 17%로 추정했다. 골드만삭스는 “한·중 관계 개선으로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소비재(화장품), 여행, 자동차 업종의 실적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자금도 한국을 향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는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로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글로벌 경기 민감도가 큰 한국증시로 자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배구조 개편 등 주주가치 제고가 ‘트리거’

삼성그룹(자사주 취득, 액면분할), 현대·기아차(매당) 등의 주주가치 제고가 다른 그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



가들은 예상한다.

한국투자증권 윤훈호 연구원은 “삼성은 오너 부채 속에서도 주주친화정책,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주가 상승 등의 3박자를 선택해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삼성전자의 파격적인 주주 환원정책과 주주 대응으로 투자자의 눈높이가 높아져 그동안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국내 대표기업에도 점진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적잖은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파격적인 배당 정책의 전철을 밟은 바 있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씨티그룹에 따르

면 지난해 한국의 배당수익률은 1.7%에 불과하다. 신흥 9개국 중 한국보다 배당수익률이 낮은 나라는 인도(1.4%)밖에 없었다. 러시아(5.5%), 대만(3.7%), 브라질(3.0%), 남아공(2.7%)도 2%가 넘는다.

지배구조 개편도 아직은 진행형이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는 아시아에서 8위 수준이다.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은 물론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보다 순위가 뒤진다. 중국이 9위이며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

는지 알 수 있다.

제도적 변화는 현재진행형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을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SK㈜와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1월 소액주주들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주요 대기업 중 처음이다.

LG그룹 지주사 (주)LG도 같은 달 구본무 회장 등이 보유한 LG상사 지분(24.7%)을 3000억원에 인수하며 LG상사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롯데는 작년 10월 롯데지주 출범을 계기로 과거 75만개에 달했던 상호·순환출자 고리를 오는 4월까지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LS, 효성, 신세계, CJ 등도 지배구조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공정위 혼자 힘만으로 재벌 개혁이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수단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타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관심은 삼성그룹과 현대기아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번 액면분할이 트리

거가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비용 부담은 크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얻어 정공법으로 위기를 넘을 것이라 해석이다. 롯데그룹도 지주사 전환의 첫걸음으로 롯데제과 유통주식을 10배로 늘리는 액면분할을 택했다.

현대기아차도 관심이다. 신호탄은 끊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달 18일 주력 계열사에 투명경영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주주권의 보호를 위한 사외이사 선임 방식을 외부 개방형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증권가에선 현대차그룹이 지주사 체제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3사를 각각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조건 뒤 현대차 투자회사 등 투자회사 3사를 둘어 지주사를 출범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제금융센터 최성남 연구원은 “국회 내 이견으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여야 법안의 최종 입법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50만원 지원

###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중 기아차 구매 고객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혜택을 제공한다.

4일 기아차에 따르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중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행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동검사 결과 적합판정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등 5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다.

기아차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고객이 기아차를 구매할 때 승용·RV·상용(버스·군수 제외) 전 차종에 20만원, K

5(P)HEV·K7 HEV·니로·쏘울EV 등 친환경차에 50만원을 지원한다.

예컨대 2004년식 쏘렌토를 조기폐차하고 이번 달에 니로를 구매하는 고객은 정부의 폐차보조금 165만원과 기아차 특별지원 50만원을 받고, 여기에 설 명절 특별 조건 30만원과 기본조건 50만원을 더해 총 29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으로 더 뉴 K5 2.0 가솔린 모델은 최대 215만원(정부의 폐차보조금 165만원, 기아차 특별지원 20만원, 설 명절 특별조건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자자체별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며 “노후경유차 교체에 도움이 되고자 전 차종을 대상으로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최근 50대 1 액면분할 결정으로 주목을 받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개인 주주는 현재 13만8000명 정도다.

그 수만 보면 비중이 95%가 넘지만 보유한 주식 비중을 따지면 4%대 수준에 불과하다.

10주 미만 보유자가 전체의 60%에 육박하고 연령별로는 40대 주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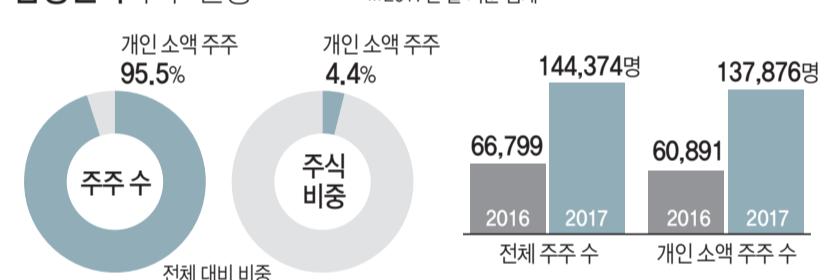
4일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주는 14만4374명이다.

이 가운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소액주주가 14만4363명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이건희 회장과 국민연금공단 등이 주요 주주다.

소액주주 중에서도 소위 ‘개미’로 불리는 개인 소액주주가 13만7876명(95.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6487명

## 삼성전자, 소액주주 13만8000명… 비중은 4%

### 삼성전자 주주 현황



※2017년 말 기준 집계

자료/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

체의 59.1%에 달하고 10~50주 4만654명(28.2%), 50~100주 6528명(4.5%), 100~500주 6928명(4.8%) 등이다. 1만주 이상 보유 주주는 1088명으로 0.8% 정도였다.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6만1598명으로 42.7%를 차지하고 경기도가 3만6260명으로 25.1%, 부산이 7012명으로 4.9%였다.

연령은 40대가 3만5321명으로 24.5%에 달해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 네이버 ‘웨일’, 모바일 브라우저시장 출사표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웹 브라우저 ‘웨일’로 모바일 웹 브라우저 시장에 도전한다.

4일 네이버에 따르면 3월에서 4월 사이 웨일의 모바일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다. 웨일은 네이버가 구글의 크롬을 기반으로 개발한 웹 브라우저다. 지난해 3월 PC

버전이 오픈베타를 시작해 10월 정식 출시됐고 이후 맥OS와 리눅스 버전도 등장했다.

웨일 모바일 버전도 지난해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불발돼 올해 1분기로 목표 시점을 연기했다. 네이버가 모바일 버전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해석

도 나온다.

웨일은 국내 사용자의 습관에 맞춰 편리한 기능을 다수 제공하며 속도가 빠르고 보안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를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했지만 크롬의 여러 플러그인도 사용 가능하다. 인공지능(AI) 통·번역기 ‘파파고’, 네이버 블로그 등 네이버 서비스와의 자연스러운 연계도 강점이다.

다만 웨일의 성공은 미지수다. 웨일 PC 버전은 지난해 3월 등장해 오픈베타를 기준으로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별 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아일랜드의 시장조사 업체인 스텝카운터에 따르면 PC 버전 웨일은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이 0.95%에 그쳤다. 구글 크롬(56.38%)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34.42%) 등 선발 주자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 역시 크롬(53.91%), 사파리(22.69%), 삼성인터넷(20.51%) 등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브라우저가 시장을 차지한 형국이다.

/오세경 기자 sesung@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웹 브라우저 ‘웨일’로 모바일 웹 브라우저 시장에 도전한다.

4일 네이버에 따르면 3월에서 4월 사이 웨일의 모바일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다. 웨일은 네이버가 구글의 크롬을 기반으로 개발한 웹 브라우저다. 지난해 3월 PC

버전이 오픈베타를 시작해 10월 정식 출시됐고 이후 맥OS와 리눅스 버전도 등장했다.

웨일 모바일 버전도 지난해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불발돼 올해 1분기로 목표 시점을 연기했다. 네이버가 모바일 버전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해석

도 나온다.

웨일은 국내 사용자의 습관에 맞춰 편리한 기능을 다수 제공하며 속도가 빠르고 보안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를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했지만 크롬의 여러 플러그인도 사용 가능하다. 인공지능(AI) 통·번역기 ‘파파고’, 네이버 블로그 등 네이버 서비스와의 자연스러운 연계도 강점이다.

다만 웨일의 성공은 미지수다. 웨일 PC 버전은 지난해 3월 등장해 오픈베타를 기준으로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별 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아일랜드의 시장조사 업체인 스텝카운터에 따르면 PC 버전 웨일은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이 0.95%에 그쳤다. 구글 크롬(56.38%)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34.42%) 등 선발 주자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 역시 크롬(53.91%), 사파리(22.69%), 삼성인터넷(20.51%) 등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브라우저가 시장을 차지한 형국이다.

/오세경 기자 sesung@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웹 브라우저 ‘웨일’로 모바일 웹 브라우저 시장에 도전한다.

4일 네이버에 따르면 3월에서 4월 사이 웨일의 모바일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다. 웨일은 네이버가 구글의 크롬을 기반으로 개발한 웹 브라우저다. 지난해 3월 PC

버전이 오픈베타를 시작해 10월 정식 출시됐고 이후 맥OS와 리눅스 버전도 등장했다.

웨일 모바일 버전도 지난해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불발돼 올해 1분기로 목표 시점을 연기했다. 네이버가 모바일 버전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해석

도 나온다.

웨일은 국내 사용자의 습관에 맞춰 편리한 기능을 다수 제공하며 속도가 빠르고 보안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를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했지만 크롬의 여러 플러그인도 사용 가능하다. 인공지능(AI) 통·번역기 ‘파파고’, 네이버 블로그 등 네이버 서비스와의 자연스러운 연계도 강점이다.

다만 웨일의 성공은 미지수다. 웨일 PC 버전은 지난해 3월 등장해 오픈베타를 기준으로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별 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아일랜드의 시장조사 업체인 스텝카운터에 따르면 PC 버전 웨일은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이 0.95%에 그쳤다. 구글 크롬(56.38%)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인